

다양한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영 주

나 진 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경험은 창의성을 증가시키거나 집단 간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주로 해외 거주 경험 같이 외국과 인종 측면에 국한된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필수 요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문화 측면과 관련 없이도 성장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 자체의 속성이 외집단(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고, 이 효과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실험을 통해 전공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점화하면 동남아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증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성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때 다양한 경험이 해외 문화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양성 경험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경험의 빈도는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 관계는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매개되었다. 또한 이 관계는 해외 문화 경험 및 동남아인을 접촉해본 경험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확인되었던 다양한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해외 문화 경험과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제한점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다양한 경험, 소수 집단, 집단 간 편향, 고정관념, 인지적 유연성

* 교신저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jinkyung@sogang.ac.kr

전 지구적으로 지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의 심리적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multicultural)를 접해본 경험이 많거나 실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다양한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경향이 있으며(Leung & Chiu, 2010; Leung, Maddux, Galinsky, & Chiu, 2008; Maddux, Adam, & Galinsky, 2010; Maddux & Galinski, 2009; Tadmor, Galinski, & Maddux, 2012),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과 문화적 지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Gaither & Sommers, 2013; Levin, Van Laar, & Sidanius, 2003; Page-Gould, Mendes, & Major, 2010; Van Laar, Levin, Sinclair, & Sidanius, 2005). 또한 다양한 경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대인적 차원, 즉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행동을 덜 나타내는 것에도 관련된다(Berger, Benatov, Abu-Raiya, & Tadmor, 2016; Chang, Astin, & Kim, 2004; Tadmor, Hong, Chao, & Cohen, 2018; Tadmor, Hong, Chao, Wiruchnipawan, & Wang, 2012). 이처럼 다양한 경험은 창의성과 같은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외국인 차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외집단에 대한 자국민의 차별적 태도는 단지 외국인의 적응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발전과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내국인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Berry, 2001).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김미진, 김경은, 2018; 이현정, 안재웅, 이상우, 2013).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국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내 소수 집단 중 부정적 편견의 대상 중 하나인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외국에 거주했던 경험과 같이 해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외와 관련된 경험이 필수적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이 해외 경험에 국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밝혀진 긍정적 효과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증가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다양한 경험이 집단 간 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직접 접촉 경험은 긍정적인 집단 간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port, 1954; Berger et al., 2016; Chang et al., 2004; Davies, Tropp, Aron, Pettigrew, & Wright, 2011; Pettigrew & Tropp, 2006). 예를 들어, 인종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외집단에 대해서 편견적 태도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rger et al., 2016; Chang et al., 2004; Levin et al., 2003), 자신과 인종이 다른 룸메이트와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내집단 편애는 덜 보이고 외집단에 대

한 고정관념과 차별 행동은 감소하는 등 우호적인 집단 간 태도를 보였다(Gaither & Sommers, 2013; Van Laar et al., 2005). 또한, 과거에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과 상호작용 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한 후에 빠른 신체적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 상황에서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age-Gould et al., 2010).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검증한 연구도 있다. Tadmor 등(2012)은 연구 참가자들을 다양한 문화 조건과 단일 문화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한 후,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유럽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미국 문화와 중국 문화 중 한 가지 문화 이미지에 노출된 단일 문화 조건 참가자들보다 미국 문화와 중국 문화 이미지 모두에 노출된 다양한 조건 참가자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 결정에서도 차별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럽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홍콩 대학생 등 다른 문화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참가자들의 문화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하였다(Tadmor et al., 2012, 2018). 즉, 다른 문화 및 다른 인종의 구성원과 실제로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덜 동의하게 하고, 편견적인 태도와 차별 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집단 간 편향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성별이나 정치적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인지적 문화 지능 등 다양한 개인차 변인을 통제하고서도 유의하였다(Tadmor et al., 2012, 2018).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이 기존과 동일하게 나타날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양한 경험의 인지적 효과

이처럼 다양한 경험이 집단 간 편향 감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먼저, 다양한 경험은 통합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들 간의 차이를 자각하게 되면 아이디어들을 비교하고 유사점(혹은 차이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더 깊고 복잡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Leung & Chiu, 2010).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 프레임을 지닌 인지구조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Benet-Martínez, Lee, & Leu, 2006; Leung & Chiu, 2010). 즉,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따라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친숙치 않은 아이디어도 잘 수용하는 경향을 갖게 해준다(Chao, Kung, & Yao, 2015; Crisp & Turner, 2011; Maddux & Galinski, 2009). 예를 들어, 이중 언어 구사자나 이중 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처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통합적인 사고를 하며(Benet-Martínez et al., 2006; Ricciardelli, 1992; Tadmor et al., 2012), 독창적인(unconventional)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Leung & Chiu, 2010; Maddux & Galinski, 2009).

또한, 다양한 경험은 기존 지식에 근거하여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사람들은 별다른 인지적 노력 없이, 기존의 도식(schema)에 근거한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상황에 반응한다(Langer, 1989, Ouellette, & Wood, 1998). 그러나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적 정보처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처

리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Fiske & Neuberg, 1990; Louis & Sutton, 1991).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는 기대와 가정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를 처리하여 결론을 빠르게 도출하고 정보탐색을 종결하려는 경향이 낮을 수 있다. 실제로 Tadmor 등(2012)의 연구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안 검색 없이 기존의 도식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 탐색을 종료하려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면 새롭고 모호한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태도에 따라 정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려는 동기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고정관념에 의존한 정보 처리를 지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참신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보다 신중한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사람들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정관념에 기반 한 판단을 덜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통합적 관점은 물론, 자동적 처리 과정에 의존한 경직된 정보 처리의 감소는 모두, 인지적 유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Lu et al., 2017; Ritter et al., 2012).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지적 유연성은 어느 상황에 처하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Martin & Rubin, 1995),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이자, 사건에 대해 다양한 설명과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일컫는다(Dennis & Vander Wal, 2010). 또한,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Gough, 1987). 즉, 인지적 유연성이란 어떤 문제나 상황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Lezak, 2004).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원리 중 한 가지는 다양성의 원리로(유힘찬, 2015), 새롭고 다양한 환경은 유연한 인지 구조 향상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경험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지식을 재구조하는 능력을 촉진하기 때문에(Gino & Ariely, 2012) 인지적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즉, 개인을 다른 문화에서 우세한 신념, 가치 그리고 행동 등에 노출시켜,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Hong, Morris, Chiu, & Benet-Martínez, 2000; Tadmor et al., 2012).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로부터 여러 관점을 통합하고 재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문화적 프레임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Benet-Martínez et al., 2006; Tadmor & Tetlock, 2006; Fu et al., 2007; Hong et al., 2000; Leung et al., 2008; Sui, Zhu, & Chiu, 2007).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인지적 유연성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기제 중에는 인지적인 측면이 있다. 복잡한 세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인지적 편파 성향(Fiske & Taylor, 1991; Langer, Blank, & Chanowitz, 1978)은 집단에 대한 인상 형성 시, 대상 집단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빠르고 단순

하게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상 형성을 하도록 만든다(Bodenhausen, 1990; Cuddy, Fiske, & Glick, 2007; Hilton & von Hippel, 1996). 그러나 새로운 문화 경험으로 인해 인지적 유연성이 증가된다면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만 근거하여 집단 구성원을 평가하는 경향이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부정적인 태도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증가한 인지적 유연성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 외국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효과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 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은, 다양한 경험의 영향에서 외국 문화 경험 여부가 필수 요소인지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거나, 국가 또는 인종 수준에서 경험한 다양함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가령, 기존 연구에서 정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란 “외국 문화(foreign culture)의 내용이나 구성원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또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Leung et al., 2008, p. 169). 즉, 국가 수준에서의 다양한 문화이거나 인종(racial)이나 민족(ethnicity)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의 잠재적 이점을 탐구한 연구들로 한데 묶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로는 다양한 경험의 영향이 외국과 관련된 경험을 필수로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인종의 룸메이트와 거주한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Gaither & Sommers, 2013)나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계 학생들 간의 상호 접촉 경험이 외집단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Berger et al., 2016)는 모두 국가-인종 수준에 국한되는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다양한 경험에 일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미국과 중국 문화를 비교하거나 두 문화가 혼합된 피피티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Leung & Chiu, 2010; Tadmor et al.,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살았던 총 시간, 참가자들의 국가 문화보다 다른 문화에 노출된 정도, 좋아하는 외국 뮤지션 수 등을 측정하여 참가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경험의 지표로 삼았는데(Leung & Chiu, 2010; Tadmor et al., 2012, 2018), 이것 또한 국가-인종 수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거주 기간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도 있는데(Maddux & Galinsky, 2009; Tadmor et al., 2012), 이러한 연구 역시 국가-인종 수준에서의 다양한 경험 효과에 국한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 경험처럼 외국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이는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지 여부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경험이 반드시 해외 경험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 장면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형식이 다양하고 다양한 문맥과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자극할 수 있고(Chieu, 2007),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직접 경험하며 비교하는 식의 다양한 경험은 인지적 유연성 개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된다(Jacobson & Spiro, 1995). 또한, 평범치 않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킨다(Ritter et al., 2012). 즉, 외국과 연관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 감소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유연성의 영향이 해외와 관련된 경험을 필수로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험의 영향이 해외와 관련된 경험을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수준의 다양한 경험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 결과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경험의 긍정적 이점에 대해 이전보다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점점 다양한 민족·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감에 따라 집단 간 태도 및 외집단 차별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효과를 해외 문화를 포함하지 않은 다양한 경험으로 정의하여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는 다양한 경험이 국내 소수 집단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역시 중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18). 즉,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현재 한국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중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동남아인에 대해

서는 뚜렷한 선호가 없거나,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숙, 2007; 김희자, 2008; 정현숙, 2004;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01; 유승무, 이태정, 2006; 임성택,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외국인 집단에 속하며, 동시에 대표적인 부정적 고정관념의 대상인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 대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도 재검증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러한 관계가 해외 문화와 관련된 경험 없이도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험의 효과가 해외와 관련된 문화 경험에만 국한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관련 연구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해외 경험과 무관한 다양한 경험이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설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마찬가지로 해외 경험을 통제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접화가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 실험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전공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닌 전공 학생들과 조모임 과제를 하는 상황을 상상하게 한 후,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164명(남성 64명, 여성 97명, 그 외 3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 가설에 대해 알지 못하며,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딧을 부여받았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77세($SD=2.23$)였으며, 참가자 중 78명이 다양한 경험 조건(다양한 전공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고, 나머지 86명은 통제조건(유사한 전공 조건)에 할당되었다.

측정 도구 및 절차

모든 실험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실험 참가자는 무선 할당된 조건에 따라 3분 동안 점화과제를 실시하였다. 조건 간 점화 과제를 마친 후,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온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문항, 그리고 해외 거주 경험 유무 문항에 순차적으로 응답하였다. 총 실험 진행 시간은 평균 7분 정도였으며, 모든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간단한 결과를 설명하는 안내문,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메일 주소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경험 점화

우선 참여자들에게 본인의 전공을 적게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vs. 유사한) 전공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특성, 관점, 방법 등 다양한 면에서 본

인의 전공과 가장 다른(vs. 비슷한) 2개의 전공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그 학생들과 조모임 과제를 하는 상황을 상상하여 그 때의 느낌과 행동이 어떠할지를 3분 동안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참여자에게 제시된 제시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서 위에 적은 2개 학과의 전공 학생과 셋이서 조모임 과제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매우 다른(vs. 비슷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조를 이룬 상황에서 당신은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거나 혹은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의 당신의 느낌과 행동, 경험은 어떠할지를 생각해보고 약 3분 동안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조작 점검

점화 과제를 위한 3분 글쓰기 후, 단일 문항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조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위에 작성한 2개의 전공은 당신의 전공과 얼마나 다릅니까?” 응답은 7점 척도(1=매우 비슷함, 7=매우 다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공과 매우 다른 특성의 전공학생과 조모임 과제를 하는 상황에 대한 점화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righam(1993)이 흑인에 대한 백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Whites' Attitudes Toward Blacks, ATB) 중 8문항을 본 연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옆집으로 이사 온 동남아인 가족이 나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교육을 받는다 해도, 나는 전혀 거리끼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한국인이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상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임을 의미한다. 문항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55로, 8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감정 온도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는 감정 온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서도 측정하였다. 감정 온도는 집단 간 태도 연구(Campbell, 1971; Haddock, Zanna, & Esses, 1993)에서 평가 대상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참가자들은 “동남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몇도가 되겠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동남아인에 대한 느낌을 0부터 99℃ 사이의 직선상에 표시하였다. 감정 온도 점수가 0도에 가까울수록 동남아인에 대해 매우 차갑거나 우호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며, 99도에 가까울수록 동남아인에 대해 매우 따뜻하거나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해외 거주 경험

마지막으로, 실험참여자들의 나이와 성별, 정치적 성향, 그리고 연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의미한다(1=매우 진보적, 7=매우 보수적). 연평균 가계 소득은 8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1,500만원 미만, 8=1억 5,000만원 이상). 또한 해외 거주 경험 유무를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 및 논의

먼저 다양한 경험 조작이 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공이 다른 정도는 실험 조건($M=5.88$)과 통제 조건($M=3.4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경험 조작이 의도한 대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t(162)=12.10, p<.001$. 다음으로,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것은 동남아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태도 $r=.16, p=.036$;

표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연구 1)

변인	1	2	3	4	5	6
1. 점화 조건	-					
2.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18*	-				
3. 감정 온도	.16*	.57***	-			
4. 해외 거주 경험	-.06	.16*	.33***	-		
5. 정치적 성향	-.03	-.38***	-.20**	.01	-	
6. 가계 소득	-.06	.05	.13	.21**	.06	-
<i>M (SD)</i>	0.48 (0.51)	5.26 (0.80)	62.26 (16.05)	0.40 (0.49)	3.45 (1.05)	4.60 (1.91)

주. 점화조건: 0=유사한 전공 조건, 1=다양한 전공 조건; 해외 거주 경험: 0=없음, 1=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점화 조건에 따른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 온도의 평균 비교(연구 1)

종속변인	다양한 전공 (n = 78)		유사한 전공 (n = 86)		t
	M	SD	M	SD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5.41	0.78	5.13	0.83	2.27*
감정 온도	64.92	16.03	59.85	15.78	2.04*

* $p < .05$.

감정온도 $r=.33$, $p<.001$), 정치적 보수 성향은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태도 $r=-.38$, $p<.001$; 감정온도 $r=-.20$, $p=.009$). 그러나 점화 조건은 해외 거주 경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가계 소득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개인차 요인이 적절히 무선 할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점화 조건에 따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온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에 따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먼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다양한 전공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M=5.41$)가 유사한 전공 조건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M=5.13$)보다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62)=2.27$, $p=.025$. 감정온도에 대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전공 조건이($M=64.92$) 유사한 전공 조건($M=59.85$)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62)=2.04$, $p=.043$. 즉, 다양한 경험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집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가계 소득) 및 해외 거주 경험 유무를 통제하고서도 앞서 나타난 점화 조건의 영향이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온도에 대한 점화 조건 간

의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하였다, 태도: $F(6, 157)=6.52$, $p=.012$, $\eta_p^2=.040$; 감정온도: $F(6, 157)=5.11$, $p=.025$, $\eta_p^2=.032$. 따라서 다양한 경험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이 동남아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와 우호적인 느낌을 나타낸 것은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이나 해외 거주 경험 유무와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일시적으로 학부 전공 면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연구 2에서는 만성적으로 접한 다양한 경험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년시절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폭 넓게 접촉한 경험을 측정하고 그것과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증가한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연구 1에서 해외 거주 경험 유무만 통제 변인으로 포함한 것과 달리 연구 2에서는 해외 거주 경험, 거주 기간, 해외 여행 경험 및 동남아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도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가-인증 수준의 문화 경험과 무관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24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11개 응답지는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서 보고된 피험자는 총 235명(남성 109명, 여성 126명)이며, 연령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평균 22.12세($SD=2.37$)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본 연구 가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측정 도구 및 절차

설문 조사 시작 전,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조사 연구라는 설명을 듣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인지적 유연성, 인구통계학적 문항, 그리고 연구 2에 새롭게 추가한 통제변인인 해외 거주 기간, 해외 여행 경험 관련 문항, 동남아인 접촉 경험 및 다문화 교육 이수 유무 등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분 정도이며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메일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경험

Guyton과 Wesche(2005)가 개발한 다문화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MES)의 다문화 경험 영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국이나 인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경험을 알아보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사람이란, 인종·민족·문화·종교·사회계층·성적취향·신체적능력 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참가자들은 총 7문항(‘어릴 적에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다’, ‘어릴 적부터 자라는 동안, 내가 사는 곳의 이웃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 등)에 대해 4점 척도(1=한 번도 없음, 4=매우 자주) 상에 응답하였다. 문항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8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 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연구 2에서는 김혜숙(2007)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동남아 외국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호감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보는지(신뢰도), 미래의 자녀가 동남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얼마나 찬성하는지(사회적 거리감)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추가로 사회적 거리감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해(김혜숙, 2007), 동남아 외국인을 친구 삼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사회적 거리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네 문항에 대해 참가자들은 6점 척도(1=매우 싫어한다, 전혀 믿을 만하지 않다, 매우 반대한다, 전혀 친구삼고 싶지 않다, 6=매우 좋아한다, 매우 믿을만하다, 매우 찬성한다, 적극적으로 친구 삼고 싶다)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문항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홍숙지(2005)가 개발한 개인 유연성 척도 중 인지적 유연성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은 17개의 순방향 문항(‘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등)와 8개의 역방향 문항(‘실생활의 대부분의 문제에는 정답과 오답만이 존재한다’, ‘나는 새롭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피하는 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였다. 25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5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방향 문항에 대한 역채점 후, 문항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설문 조사 응답 시, 측정 문항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예: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등)을 담고 있을수록 피험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Holtgraves, 2004). 따라서 자기보고형 문항을 통해 편견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ulhus(1998)가 개발한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척도를 정보라(2005)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중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요인 각각 5문항을 사용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축약하여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대체로 맞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 적이 있다”(역문항) 등을 포함한다. 참가자들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한다. 10개 문항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39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문항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¹⁾.

1)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척도의 문항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31,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 별로 문항 평균을 구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도 연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0개 모든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해외 문화 경험

연구1과 동일한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그리고 연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또한 해외 거주 경험 유무 뿐 아니라, 총 거주 기간에 대해 연, 월, 일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고, 해외 여행 경험 유무, 해외 여행 총 기간, 여행했던 국가 개수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인과의 접촉 경험 여부도 통제하기 위해 직접 접촉 경험 유무(‘당신은 최근 1년간 국내에서 동남아 외국인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와 관련 교육을 통한 간접 접촉 경험 유무(‘당신은 최근 1년 동안 동남아 외국인과 관련된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를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결과 및 논의

먼저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예측한대로, 다양한 경험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r=.16, p=.014$, 인지적 유연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9, p=.004$. 또한,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인지적 유연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5, p<.001$. 즉,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높은 인지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관 분석 결과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덜 취약하며, 인지적 유연성이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본 연구 가설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 회귀

표 3.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연구 2)

변인	1	2	3	4	5	6	7
1. 다양한 경험	-						
2.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16*	-					
3. 인지적 유연성	.19**	.25***	-				
4. 해외 거주 경험	.33***	.17**	.01	-			
5. 정치적 성향	-.09	-.12	-.07	-.06	-		
6. 가계 소득	.02	-.02	.08	.13*	.15*	-	
7.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18**	.06	.29***	.04	-.05	.06	-
<i>M (SD)</i>	2.42 (0.62)	3.72 (0.71)	4.01 (0.50)	0.36 (0.48)	3.76 (1.16)	5.13 (1.72)	3.75 (0.55)

주. 해외 거주 경험: 0=없음, 1=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경험이 많은 것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beta=.159$, $p=.014$ 로 나타났다(모형1). 이러한 정적 관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가계 소득,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통제하고서도 유의하였으며, $\beta=.149$, $p=.026$ (모형 2), 국가-인종 수준의 다양한 경험과 연관된 해외 거주 경험, 해외 여행 경험, 그리고 동남아인과의 직·간접 접촉 경험을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47$, $p=.044$ (모형 3).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간의 정적 관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는 독립적이며 해외와 관련된 경험을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SPSS Indirect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부스트래핑 절차(bootstrapped sample=5000, 95% CI)를 통해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

표 4. 다양한 경험이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연구 2)

투입 변인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다양한 경험	.16*	.15*	.15*
성별		-.02	-.09
나이		-.04	-.11
정치적 성향		-.10	-.11
가계 소득		-.01	-.07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03	.02
해외 거주 경험			.21*
해외 거주 기간			-.31**
해외 여행 경험			.03
해외 여행 기간			.18*
여행 국가 수			.04
동남아인 직접 접촉			.03
동남아인 간접 접촉			.15*
R^2	.03	.04	.14

주. 성별: 0=남성, 1=여성; 해외 거주 및 여행 경험: 0=없음, 1=있음; 동남아인 직·간접 접촉 경험: 0=없음, 1=있음; 해외 거주 기간과 해외 여행 기간은 모두 일(day)단위로 환산하였음. 모든 숫자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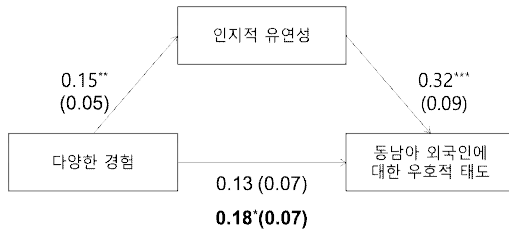


그림 1.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주. 모든 숫자는 통계 전 비표준화 계수이며 표준 오차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음. 전체 효과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과, 다양한 경험은 인지적 유연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b=0.150$, $SE=0.052$ [0.048, 0.252], $p=.004$, 인지적 유연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제하고서도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와 여전히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b=0.323$, $SE=0.092$ [0.142, 0.503], $p<.001$.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b=0.183$, $SE=0.074$ [0.037, 0.329], $p=.014$.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는 인지적 유연성을 통제하고 난 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135$, $SE=0.074$ [-0.011, 0.280], $p=.069$.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b=0.048$, $SE=0.025$ [0.011, 0.114], $Z=2.18$, $p=.029$. 추가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소득)과 국가-인종 수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한 변인(해외 거주, 해외 여행, 동남아인적·간접 접촉 경험),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도 앞서 나타난 간접효과가 유효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접효과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고, $b=0.047$, $SE=0.023$ [0.014, 0.114], $Z=1.98$, $p=.048$, 여전히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관계는 인지적 유연성에 의해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동남

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외 문화 경험과 무관한 다양한 경험 자체가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 다양한 경험을 측정할 때, 인종이나 민족처럼 외국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의 자신과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이라고 설명하여 다양한 경험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해외 경험을 측정하여 회귀 분석에서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해외 문화 경험의 영향을 좀 더 면밀히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가 해외 거주 경험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보여준 다양한 경험의 효과가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 해외 거주 경험(유, 무),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해외 거주 경험 유무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경험과 해외 거주 경험이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28$, $SE=0.050$, $p=.571$. 같은 맥락에서,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 해외 여행 기간과 동남아인 간접 접촉 경험에 대해서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는 이들 변인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지 않았다, all $ps >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참가자의 해외 거주 및 여행과 관련된 경험이나 동남아인과의 접촉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꼭 해

외와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외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 1에서 자신과 매우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과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경험한 대학생들은 동남아인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 2의 결과,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매개되었다. 즉, 어릴 때부터 자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지적 유연성이 높았으며, 이는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해외 거주, 해외 여행, 그리고 동남아인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을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국내 피험자를 통해 재확인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 연구는 주로 해외, 즉 자국이 아닌 타국 문화와 인종 측면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역할을 발견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꼭 해외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향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집단 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 결과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통계 자료(2018년)에 따르면, 1998년에는 30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36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 주민등록인구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런 추세라면 한국 사회도 이민 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 시대로의 이행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작업은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비하여 이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곽준혁, 2007). 이와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과의 갈등, 외국인 차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갈등 문제는 단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외국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한국 사회의 통합을 꾀하는데 있어서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째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본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검증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점점 다양한 인종-민족 구성원들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대학생들은 미래에 사회 진출 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현실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작업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다양한 경험을 점화, 측정된 방식은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기존의 신념 및 가치관과 불일치하는 요소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선행 연구에서 중국 문화에만 노출된 미국인에게서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중국과 미국 문화 모두에 노출된 미국인에게서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Tadmor et al., 2012).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에

동시에 노출됨을 통해 간극을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경험자가 지니고 있던 기존의 문화적 틀과 새로운 문화적 틀 간의 서로 불일치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경험이라고 보기 때문에(Crisp & Turner,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된 다양한 경험이 여기서 매우 벗어나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불일치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측정하여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해외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경험을 측정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 2에서 사용한 다양성 경험 측정 도구가 다른 국가나 인종 사람과의 접촉 경험을 완벽히 배제한 다양한 경험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경험이 모두 '사회적' 맥락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삶이 다양한 비사회적 경험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경험 자체의 영향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 2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인지적 유연성 증가에 끼치는 정확한 인과 관계는 알 수 없다. 가령,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 모두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인과 관

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선상에서, 다양성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인(예: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격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본 연구 결과가 유의할지 향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태도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간의 잠재적 관계가 다른 개인차 요인을 포함한 대안적 설명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다양한 경험과 개방성 성격 요인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ung & Chiu, 2010).

네 번째로, 연구 참가자들은 지필검사 형식을 통해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 질문에 응답을 했다. 그러나 연구에서 보고한 태도는 실제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외집단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는 외현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암묵적으로 미묘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Weisbush, Pauker, & Ambady, 2009).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측정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내현적이고 암묵적인 태도를 잴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에 관하여 향후 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된 가설은 아니지만, 해외 거주 기간은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양한 경험의 긍정적 이점을 다룬 본 연구와는 달

2) 통계적 대안 모형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매개변인으로 하고 인지적 유연성이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에 끼치는 모형을 연구 2에서의 매개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인지적 유연성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31$, $SE=0.025$, 95% CI[-0.003, 0.101]. 또한, 해외

거주 경험이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켜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 모형을 매개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해외 거주 경험과 인지적 유연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b=0.012$, $SE=0.068$, $p=.856$, 인지적 유연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004$, $SE=0.026$, 95% CI[-0.041, 0.064].

리, 해외 문화 경험은 비도덕적 행위를 증가시키거나(Lu et al., 2017), 문화 충격으로 인한 주관적 안녕감 감소, 및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Berry & Annis, 1974; Zapf, 1991), 해외 거주 경험 혹은 다양한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동남아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만을 살펴보았는데, 한국 사회의 다른 소수 집단과 내집단으로 지각되는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면, 기존 연구 결과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정적인 고정관념까지 포함하여 결과를 검증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김영주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사로는 집단 간 관계, 사회 계층, 및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 등이 있다.

나진경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석사,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서강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 사회 계층, 및 사회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준혁 (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1.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김미진, 김경은 (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1), 1-27.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1), 255-282.

법무부 (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60&fn=1546651726581101>

법무부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2월호.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60&fn=temp_1548720809280100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승무, 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9(2), 275-311.

유힘찬 (2015). 초등학생의 인지적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논변활동 수업 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정, 안재웅, 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57.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분석. 교육학 연구, 41(3), 275-301.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형숙 (2004).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 체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2(3), 27-45.
- 홍숙지 (2005). 개인 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 Benet-Martínez, V., Lee, F., & Leu, J. (2006). Biculturalism and cognitive flexibility: Expertise in cultural represent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 386-407.
- Berger, R., Benatov, J., Abu-Raiya, H., & Tadmor, C. T. (2016). Reducing prejudice and promoting positive intergroup attitudes among elementary-school children in the context of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7*, 53-72.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25-631.
- Berry, J. W., & Annis, R. C. (1974). Acculturation stress: The role of ecology, culture and differenti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382-406.
- Bodenhausen, G. V. (1990). Stereotypes as judgmental heuristics: Evidence of circadian variations in discrimination. *Psychological Science, 1*(5), 319-322.
- Brigham, J. C. (1993). College students' racial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933-1967.
- Campbell, D. T. (1971). *White attitudes toward Black people*.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Chang, M. J., Astin, A. W., & Kim, D. (2004). Cross-racial interaction among undergraduates: Some consequences, causes, and pattern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5*(5), 529-553.
- Chao, M. M., Kung, F. Y., & Yao, D. J. (2015). Understanding the divergent effects of multicultural exp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7*, 78-88.
- Chieu, V. M. (2007). An operational approach for building learning environments supporting cognitive flexi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0*(3), 32-46.
- Crisp, R. J., & Turner, R. N. (2011). Cognitive adaptation to the experience of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Psychological Bulletin, 137*(2), 242-266.
- Cuddy, A. J. C.,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648.
- Davies, K., Tropp, L. R., Aron, A., Pettigrew, T. F., & Wright, S. C. (2011). Cross-group friendships and intergroup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 332-351.
- Dennis, J. P., & Vander Wal, J. S. (2010).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Instrument development and estimat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4*(3), 241-253.
- Fiske, S. T., & Neuberg, S. L. (1990). *A Continuum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P. Z. Mark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Volume 23, pp. 1-74): Academic Press.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u, J. H. Y., Morris, M. W., Lee, S. I., Chao, M., Chiu, C. Y., & Hong, Y. Y. (2007). Epistemic motives and cultural conformity: Need for closure, culture, and context as determinants of conflict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91-207.
- Gaither, S. E., & Sommers, S. R. (2013). Living with

- an other-race roommate shapes Whites' behavior in subsequent diverse setting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2), 272-276.
- Gino, F., & Ariely, D. (2012). The dark side of creativity: Original thinkers can be more dishon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445-459.
- Gough, H. G. (1987).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dministrator's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s*, 7(4), 21-29.
- Haddock, G., Zanna, M. P., & Esses, V. 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05-1118.
- Hilton, J. L., & von Hippel, W. (1996). Stereotyp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1), 237-271.
- Holtgraves, T. (2004). Social Desirability and Self-Reports: Testing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2), 161-172.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í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7), 709-720.
- Jacobson, M. J., & Spiro, R. J. (1995). Hypertext learning environments, cognitive flexibility, and the transfer of complex knowledge: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2(4), 301-333.
- Langer, E. J. (1989). Minding Matters: The Consequences of Mindlessness - Mindfulness. In B. Leonard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Volume 22, pp. 137-173): Academic Press.
- Langer, E. J., Blank, A., & Chanowitz, B. (1978). The mindlessness of ostensibly thoughtful action: The role of 'placebic' information in interperson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6), 635-642.
- Leung, A. K. Y., Maddux, W. W., Galinsky, A. D., & Chiu, C. Y. (2008). Multicultural experience enhances creativity: The when and how. *American Psychologist*, 63(3), 169-181.
- Leung, A. K. Y., & Chiu, C. Y. (2010). Multicultural Experience, Idea Receptiveness, and Creativ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5-6), 723-741.
- Levin, S., Van Laar, C., & Sidanius, J. (2003). The effects of ingroup and outgroup friendships on ethnic attitudes in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6(1), 76-92.
- Lezak, M. D. (2004).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uis, M. R., & Sutton, R. I. (1991). Switching cognitive gears: From habits of mind to active thinking. *Human Relations*, 44, 55-76.
- Lu, J. G., Quoidbach, J., Gino, F., Chakroff, A. Maddux, W. W., & Galinsky, A. D. (2017). The dark side of going abroad: How broad foreign experiences increase immor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1), 1-16.
- Maddux, W. W., & Galinsky, A. D. (2009). Cultural borders and mental barriers: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broad and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47-1061.
- Maddux, W. W., Adam, H., & Galinsky, A. D. (2010). When in Rome... Learn why the Romans do what they do: How multicultural learning experiences facilitate crea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6),

- 731-741.
- Martin, M. M., & Rubin, R. B. (1995). A new measure of cognitive flexibility. *Psychological Reports, 76*(2), 623-626.
- Ouellette, J. A., & Wood, W. (1998). Habit and intention in everyday life: The multiple processes by which past behavior predicts futur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4*(1), 54-74.
- Page-Gould, E., Mendes, W. B., & Major, B. (2010). Intergroup contact facilitates physiological recovery following stressful intergroup inter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5), 854-858.
- Paulhus, D. L. (1998). *Manual for the Paulhus Deception Scales: BIDR Version 7*.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icciardelli, L. A. (1992). Creativity and bilingualism.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6*(4), 242-254.
- Ritter, S. M., Damian, R. I., Simonton, D. K., van Baaren, R. B., Strick, M., Derks, J., & Dijksterhuis, A. (2012). Diversifying experiences enhance cognitive flex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961-964.
- Sui, J., Zhu, Y., & Chiu, C. Y. (2007). Bicultural mind, self-construal, and recognition memory: Cultural priming effects on self- and mother-reference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818-824.
- Tadmor, C. T., & Tetlock, P. E. (2006). Biculturalism: A model of the effects of second-culture exposure on integrative complex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 173-190.
- Tadmor, C. T., Galinsky, A. D., & Maddux, W. W. (2012). Getting the most out of living abroad: Biculturalism and integrative complexity as key drivers of creative and professi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3), 520-542.
- Tadmor, C. T., Hong, Y. Y., Chao, M. M., Wiruchnipawan, F., & Wang, W. (2012). Multicultural experiences reduce intergroup bias through epistemic unfreez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5), 750-772.
- Tadmor, C. T., Hong, Y. Y., Chao, M. M., & Cohen, A. (2018). The tolerance benefi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depend on the perception of available ment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5*(3), 398-426.
- Van Laar, C., Levin, S., Sinclair, S., & Sidanius, J. (2005). The effect of university roommate contact on ethnic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4), 329-345.
- Webster, D. M., & Kruglanski, A. W.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49-1062.
- Weisbuch, M., Pauker, K., & Ambady, N. (2009). The subtle transmission of race bias via televised nonverbal behavior. *Science, 326*(5960), 1711-1714.
- Zapf, M. K. (1991). Cross-cultural transitions and wellness: Dealing with culture shock.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14*(2), 105-119.

1 차원고접수 : 2019. 06. 08.
수정원고접수 : 2019. 08. 28.
최종게재결정 : 2019. 09. 05.

The effect of diverse experiences on prejudice against outgroup: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flexibility

Youngju Kim

Jinkyu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demonstrated that multicultural experiences can generate beneficial outcomes such as reduced intergroup biases. However, those effects of diverse experiences were largely limited to diverse experiences involving foreign cultures such as living abroad. We proposed that diverse experiences would still be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outgroup even when the nature of the experiences is not related to foreign cultures. We also sugges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diverse experiences and positive attitudes would be mediated by cognitive flexibility. Result of study 1 revealed that participants who were asked to think about interactions with classmates with other majors than their own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a negatively stereotyped group in Korea (i.e., Southeast Asians) than those who were asked to think about interactions with classmates with the same major. In study 2, we showed that broadly defined diverse experiences were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Southeast Asians. Moreover, this association was mediated by cognitive flexibility. Finally, these relations persisted even when controlling for foreign-related variables, such as living abroad and experience to contact outgroup member.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ose with diverse experiences may become cognitively flexible and overcome intergroup biases regardless of how much they have experiences relating to foreign cultures.

Keywords: diverse experiences, minority group, intergroup biases, stereotypes, cognitive flexibility